

해골바위 정복하고 그림책 미술관서 인생샷

전북을 여행한다고 하면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나 미륵사지와 국립박물관이 있는 익산을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인접한 완주 역시 이들 고장 못지않게 볼거리가 풍부한 곳이다. 특히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기차산 해골바위 등의 산행길과 안덕구이마을, 삼례 책마을 같은 힐링공간은 완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여행 명소들이다.

기차산, 가파른 경사암벽 스티를 넘쳐 그림책 미술관서 세계적 작품 관람 안덕마을에선 한증막·산책 건강체험 완산 8경 위봉폭포서 여유로운 휴식

●가을 산행의 재미 만끽, 해골바위

완주 산행하면 ‘호남의 금강’ 대둔산이 유명하지만 기차산도 산행, 특히 가을 나들이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기차산은 완주군과 진안군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최고봉인 장군봉은 바위산으로 기암절벽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웅장한 자태가 일품이다. 742m로 그리 높지 않지만 산행 대부분이 바위구간이라서 5시간 정도 각오해야 한다. 기차산이란 이름은 등산객들이 밧줄에 매달려 오르는 모습이 기차를 떠올려 붙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곳 산행의 백미는 해골바위다. 등산로를 따라 다양한 모양새의 바위를 보는 재미가 남다르다. 오희수목 경사가 가파른데, 특히 마지막 구간은 거의 로프와 밧줄에 의지해야 한다. 목격자인 해골바위는 풍화로 거대한 바위에 크고 작은 구멍이 뚫린 모습 덕분에 붙었다. 오르는데 체력 힘이 들지만 바위와 마주하면 고생스런 산행길이 전혀 억울하지 않은 절경이다.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거대한 바위의 약한 부분에 크고 작은 구멍이 뚫려 재미있는 모습을 하게 된 완주 기차산 해골바위. 가파른 경사의 암벽에 박은 밧줄을 밟고 로프에 의지해 올라야 하는 기차산 해골바위로 오르는 산행길. 완주 삼례 책마을에 있는 국내 유일의 그림책 미술관. 아담한 공간이지만 해외 그림책과 원화를 감상하면서 아이와 함께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가족나들이 명소다. 지역 한의원과 연계한 완주 구이안덕마을의 건강 힐링 체험 프로그램. 한방 건강 프로그램 체험과 한증막, 마을 산책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위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 사진 | 지면제21

●아이 인생샷 이곳서, 삼례 그림책 미술관

삼례읍 책마을은 아이와 함께 가족나들이로 완주에 온다면 꼭 들려볼만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전국 유일의 그림책 미술관이 있다. 세계문화사적 가치가 높은 그림책과 그림책의 원화를 수집, 연구, 전시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양곡창고를 미술관으로 개조했다. 1층 기획전시, 2층 상설전시, 그리고 1층과 2층을 연결해 관람객의 문화행사 참여와 휴식을 위한 어울림 계단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개관기념전으로 ‘오정과 마법의 숲’ 기획전전을, 상설전시로는 ‘빅토리아 시대 그림책 3대 거장전’을 열고 있다. 전시작을 보는 재미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진이 참 예쁘게 찍히는 곳이다. 아이의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

●황토 토속한증막서 힐링, 구이안덕마을

모악산 자락에 있는 안덕마을은 여유로운 동네 풍경이 인상적인 곳이다. 마을면적 절반 이상이 도립공원에 속해 있다. 이곳은 한의원과 연계해 각종 건강 체험프로그램과 힐링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러 시설중 10여 가지 한약재를 달인 물로 황토 흙을 빚어 만든 토속한 증막이 대표적인 명소다. 체질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증막과 산책을 함께하는 안덕마을 대표 관광 콘텐츠다.



오랜 세월 풍화작용으로 거대한 바위의 약한 부분에 크고 작은 구멍이 뚫려 재미있는 모습을 하게 된 완주 기차산 해골바위. 가파른 경사의 암벽에 박은 밧줄을 밟고 로프에 의지해 올라야 하는 기차산 해골바위로 오르는 산행길. 완주 삼례 책마을에 있는 국내 유일의 그림책 미술관. 아담한 공간이지만 해외 그림책과 원화를 감상하면서 아이와 함께 예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가족나들이 명소다. 지역 한의원과 연계한 완주 구이안덕마을의 건강 힐링 체험 프로그램. 한방 건강 프로그램 체험과 한증막, 마을 산책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위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 사진 | 지면제21

●그리고...고산자연휴양림과 위봉폭포

고산자연휴양림은 숲을 활용한 가족휴양지다. 다른 휴양림과 비교해 특별한 공간이나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잘 관리된 숲과 산이 여유로운 휴식에 딱 좋다.

위봉산성 동문 쪽에 있는 위봉폭포는 60m 높이의 2단 폭포로 완산 8경 중 하나이다. 도로에서 폭포 아래까지 목재계단으로 연결해 쉽게 갈 수 있다. 폭포수량이 강수량에 영향을 받는 편이라 비온 뒤에 방문하면 더 좋다. 조선 판소리 8대 명창인 권삼득 선생이 이곳에서 득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능성·세련된 디자인...리사이클링 소재까지 노스페이스, ‘2021 키즈 어텀 컬렉션’ 출시

일상·캠핑 다목적 활용...플리스 재킷·가방 등 구성

영원아웃도어(대표 성기학)의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활동적인 아이들의 일상생활부터 캠핑, 피크닉 등 다양한 가을철 아웃도어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2021 키즈 어텀 컬렉션’ 신제품(사진)을 출시했다.

올 가을 대세 아이템인 플리스 재킷, 데일리룩으로 좋은 스웨트 셔츠와 조거 팬츠,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에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바람막이 재킷을 비롯해 활용도 높은 가방과 스니커즈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주력 제품들은 다양한 리사이클링 소재를 적용해 지구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는 친환경·친교육적 아이템으로 탄생했다.

노스페이스만의 기술 혁신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친환경 뽀글이’의 대표 제품이자 동일 디자인의 성인용 제품이 함께 출시돼 친환경 패밀리티크 연출이 가능한 ‘키즈 플레이 그린 플리스 후디’는 페트병 리사이클링 소재가 적용된 친환경·친교육적 제품이다. ‘키즈 타코마 스니커’는 겉감에 리사이클링 캔버스 소재, 안창에는 자연 생분해가 가능한 천연 메리노 울이 각각 적용됐다. 벨크로 타입으로 아이들이 쉽게 신고 벗기 좋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여러 스타일과 매칭하기 좋다.

‘키즈 보마 스웨트 셔츠’는 다양한 야생 동물을 귀여운 캐릭터로 적용한 오버핏 제품으로 안감을 기모처리해 보온성을 강화했다. ‘키즈 보마 후디’는 라이트 베이지, 다크 그레이 및 라일락 등 세련된 컬러에 여우, 토끼, 펭귄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이 겨울 복장을 한 귀여운 일러스트를 포인트로 더했다.

‘국민 아웃도어’ 노스페이스만의 기술 노하우와 디자인 철학이 담긴 가을철 신제품도 눈길을 끈다. 스테디셀러 제품인 ‘키즈 리모 재킷’은 발수 가공과 밑단에 조절 가능한 스트링이 적용돼 외부의 바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준다. 경량의 리사이클링 나일론 소재가 적용돼 활동성이 뛰어나고 라이트 베이지, 소프트 핑크 및 블랙 등 세련된 색상으로 코디도 쉽다.

캠핑 관련 아이콘 패턴이 눈에 띄는 ‘키즈 버킷 햇’은 개성 넘치는 아웃도어룩을 완성시켜주는 포인트이자 가을 햇빛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아이템. 내부 땀받이는 흡수 및 속건 기능이 뛰어나고, 벨크로가 적용돼 사이즈 조절도 가능하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비와이엔블랙야크, 페트병 재활용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

비와이엔블랙야크가 국내 투명 페트병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 티케이케미칼과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8일 서울 블랙야크 양재 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태선 비와이엔블랙야크 회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김병기 티케이케미칼 부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비와이엔블랙야크는 창원시에서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친환경 제품인 ‘플러스틱’ 생산을 확대한다. 플러스틱(PLUSTIC)은 플러스(Plus)와 플라스틱(Plastic)을 합친 말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지구에 플러스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비와이엔블랙야크가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들과 협력해 국내에서 사용된 페트병의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발한 친환경 제품의 이름이기도 하다.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내년 어린이날 그랜드 오픈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사진)는 내년 어린이날에 그랜드 오픈한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공식개장 일정과 함께 30일부터 판매하는 한정판 연간이용권 ‘퍼스트 투 플레이 패스’도 공개했다. ‘퍼스트 투 플레이 패스’는 레고랜드 개장을 기념해 선보이는 연간이용권으로 공식개장 전인 가오픈 기간에 리조트를 미리 체험해볼 수 있다. 한편 29일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



회에서는 브릭토피아 등 리조트의 7개 테마구역과 주요 어트랙션 등도 소개했다.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0월 1일 (금) 음력: 8월 25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뽀글이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웅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이성간의 금전관계를 조심하라.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몰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경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성실성과 근면성이 부족하다.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면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지나치게 설치면 실수한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되며 경쟁도 심할 때이므로 일각이라도 남보다 빨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해야 한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침착하게 행동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한 발 앞선 행동도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도움을 받으려면 말피에게 부탁하라.	사방이 위협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동문회에 나가면 과음하지 말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닭	행운색: 검정 길방: 북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방동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귀족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공연한 심통에 짜증만 낼 수 있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대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오늘은 매사 꼼꼼히 살펴라.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리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레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관제수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이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곧게 가지면 이롭다. 활발히 움직여라.	최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은 법이다. 사소한 일 때문에 송사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재능이 빛을 보는 날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겠다. 일확천금을 바라는 기운이다.						